

온난화 대비 너무 앞서갔나...전남도 수종 선택 잘못

국지도 55호선 가로수 수백그루 고사

나주 남평~세지 도로 개설 때 추위에 약한 먼나무 심어

지난 겨울 절반 가량 얼어죽어
하자보수 불투명 예산 낭비 우려

전남도가 나주시역 내 도로 개설 과정에서 식재한 가로수들이 기후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조성되면서 지난 겨울 동안 얼어 죽거나 고사 직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전남도와 나주시, 나주시역민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말 나주 남평에서 세지 구간 4차선 도로인 국지도 55호선을 일부 개설하고 부분 개통(남평에서 세지 방향 6km구간)했다.

전남도는 도로 신설과 함께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가로수 수종을 선택하면서 기후가 따뜻한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에서 자생하는 ‘먼나무’ 수백그루를 해당 도로에 심었다.

하지만 가로수 대부분이 지난 겨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동사했는가 하면 새싹도 피우지 못한 채 고사 직전으로 방치되면서

경관 조성은커녕 주변 미관을 훼손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식재 가로수와 주변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나마 살아남은 어린나무를 침엽수 등이 휘감아 올라가고 있으며, 주변으로 잡초 등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이 같은 관리 부실과 잘못된 수종 선택으로 해당 도로구간에 조성된 가로수 중 절반 이상이 죽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사한 가로수에 대한 하자보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로 가로수의 하자보수 기간은 평균 2년으로 해당 도로 구간의 경우 1년 이상의 보수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전남도가 설계 당시 추위에 취약한 먼나무를 선택한 만큼 하자보수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해당구간에 대한 고사나무 철거와 새로운 나무 식재 등에 따른 예산 낭비도 우려되고 있다.

조경 전문가들은 “먼나무는 추위에 약한 수종인데다 나무가 어리다 보니 환경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고사한 것으로 추정된



나주 남평~세지방향 국지도 55호선에 식재된 가로수들이 고사해 도로 미관을 훼손하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kwangju.co.kr

다”면서 “다툼은 있겠지만, 먼나무를 선택한 발주처의 잘못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경 전문가들은 또 최근 전남도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 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비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가로수의 수종을 상록수 위주로 심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기후와 현장에 맞는 신중한 수종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

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통해 기후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한 뒤 후속 조치에 나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지도 55호선은 부분 개통에 이어 올 추석 이전까지 송현교차로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세지 구간은 내년께 완료할 예정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중복분양 사기’ 시행사 대표 은닉재산 동결

법원, 추정보전명령 받아들여

광주 농성동 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 사건을 주도한 시행사 대표의 은닉재산이 동결됐다.

광주지검은 수백억원 중복 분양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골든힐스타워 시행사 대표 박모(57)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정보전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0일 밝혔다.

실질적 피해 회복의 첫 토대가 마련됨은 물론 더 있을지도 모르는 은닉재산 추적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박씨의 오피스텔 분양권 63개와 명의신탁된 토지 5필지, 아파트 1가구, 예금채권 9개 계좌, 자동차 1대를 찾아냈다. 또 피해금 사용자 일부와 임의로 소

비에 횡령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박 대표의 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지면서 현재까지 발견된 박씨의 모든 자산은 동결됐다.

검찰은 채무변제액으로 사용된 금액 중에도 박씨의 은닉재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고 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 482가구 중 80% 가량을 7000만~8000만원에 정상 분양한 뒤 이를 다시 절반 가격에 중복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824건의 중복 분양 피해를 주장한 520여명의 고소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군인간 추행 처벌” 합헌 촉구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등 168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광주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군인간 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6’의 합헌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등 168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광주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군인간 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6’의 합헌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세월호 유족 절반 ‘외상후 스트레스’ 시달려

42.6%는 자살 생각도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피해자들의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상당수가 정신적·신체적 이상 증상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

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단원과 희생자 유가족의 절반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위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단원과 희생학생 유가족 145명을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한 유가족은 조사에 응한 145명 중 79명으로 56%에 해당한다.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유가족의 비율도 42.6%에 달해 일반인 평균치인 2~5.6%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자도 4.3%로 일반인 평균치의 0.2~0.9%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특조위 측은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없던 신체적 이상도

생겨나 상당수가 전신피로(80.9%), 수면장애(75.4%), 두통(72.7%) 등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참사로 직장을 잃는 등 생활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겪은 유가족도 상당수였다. 참사가 있기 전에는 81.3%에 해당하는 116명이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이들 중 75명이 참사 후 트라우마 등으로 직장을 그만뒀다. /연합뉴스

발암물질 피해 조사 검증위원회 설치

세방산업 대책기구 첫 회의

재가동 여부는 논의 대상 제외

권은희 의원 “배출기준 강화를”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대책기구는 20일 첫 회의를 열고 업체가 배출하는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배출 피해 등을 조사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책기구는 그러나 세방산업의 ‘재가동 여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방산업 스스로 소속 근로자와 인근 주민을 비롯한 광주시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한 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고 그 뒤 감당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세방산업은 법적 배출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6년간 공장 내에서 1급 발암물질을 대기로 가장 많이 내뿜는데다 지난 2014년에만 294t의 발암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공개돼 엄청난 비난에 직면한 상태다.

대책기구는 TCE배출 피해 등을 조사하는 위원을 10명가량 위촉해 검증위를

구성한 뒤 세방산업 근로자 전원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실시 여부와 세방산업이 사용하는 발암물질인 TCE를 대체하는 물질에 대한 논의도 검증위 소관이다.

대책기구는 추후 회의를 계속하면서 세방산업이 배출하는 발암물질 측정망 구축, 발암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설비의 적정성도 조사한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하남산단 세방산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환경당국, 노동당국은 세방산업이 사용하는 발암물질인 TCE에 대한 근본 조치없는 공장가동을 불허하고 노동자와 인근 주민에 대한 특별 보건 진단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부는 작업장 내 기준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유독물질 배출량을 정기 점검하고 사용 및 배출 기준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김형호기자 khh@

공기청정기 등 61개 제품 유독물질 배출

환경부, 회수 권고 조치

정부가 항공필터에서 유독물질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을 배출하는 공기청정기 58개와 차량용 에어컨 3개 등 61개 제품에 대해 회수 권고 조치했다. OIT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유사한 유독물질이다.

환경부는 20일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내 유독물질 OIT를 함유한 항공필터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받고 OIT가 함유된 61개 제품을 공개했다.

58개 공기청정기 모델을 제조사별로 보면 코웨이 21개, LG전자 17개, 쿠쿠 9개, 삼성전자 6개, 위니아 2개, 프렉코 2개, 청호나이스 1개 등이다. 3개 차량용 에어컨은 현대모비스 1개, 두원 2개다. 제조사와 관계없이 3M이 제조한 항공필터가 60개 제품에서 사용됐다. 환경부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는 실험편에서, 차량용 에어컨 필터는 실제 차량에 측정기를 장착한 후 기기를 가동해 사용전·후 OIT 함량을 비교, 분석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미사일발사대 끌던 미군차량

광주 쌍촌동서 가로등 파손

광주 도심에서 미사일발사대를 끌고 가던 주한미군 차량이 가로등을 파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광주시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5시께 서구 쌍촌동 윤천저수지 4거리에서 미8군 소속 작전 트럭이 가로

등을 충격했다. 이 충격으로 가로등 기둥이 구부러져 구형 추산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트럭은 이동식 미사일발사대를 끌고 상무지구에서 송정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가로등과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청은 부러진 가로등을 긴급 복구하고 미군 측에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꽃·나무 보면 기분 좋아져…” 화본 80개 흠친 노인



○~치매와 우울증을 동시에 앓고 있는 70대 노인이 꽃과 나무를 보면 기분이 나아진다는 이유로 80개에 달하는 화분을 흠쳐오다 경찰에 달미.

○~2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최초 (73)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동구 일대에서 길가에 놓인 시가 185만

원 상당의 꽃과 나무 화본 79개를 흠친 혐의(상습절도).

○~최씨는 치매와 우울증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홀로 나와 화원·상가 앞에 놓인 화분을 흠쳐왔는데, 경찰은 “꽃과 나무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흠쳤고, 집에도 100여개의 화본이 있었다”고 설명. /김경인기자 kki@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